



궁·금·함·니·다

◆ 본고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의 '전문가 상담코너'에 게재된 질문과 답변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 홍보부 -

.. 사 양 ..

Q 임신돈이 분만 10일정도 남았는데 사료를 먹지 않습니다. 증상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은것 같고 변이 토끼변처럼 몽글몽글합니다. 물을 자주 먹으며 그것으로만 일주일째 버티고 있습니다. 체형도 상당히 마르고 새끼는 아직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심되는 병이 있으면 치료방법과 원인에 대해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A <김태주 한국애니멀컨설팅&클리닉 대표>
식욕부진이고 열이 난다는 것으로 보아 염증성 질환(자궁질환이나 유방염, 기타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비도 생기고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급 항생제(암피실린제 등)+해열제+대사촉진제로 3~4일간 치료하시고 간혹 조산이나 유산 가능성도 있습니다.

.. 사 료 ..

Q 자돈사는 바닥에서 50cm정도의 케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조금 심할 정도의 가스가 차는 편이고 온도는 현재 26°C입니다. 그런데

이유한 자돈들이 겹쳐서 엎드려 있습니다. 더불어 입기와 배기에 관리방법에 관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채병조 강원대 동물자원학부 교수>
온도는 적온일때 자돈이 포개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 후의 자돈 적온은 32~36°C 정도인데 귀하 농장의 온도가 그 정도 이하이면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온도를 올려주시기 바라며 환기는 온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요즘 자돈기 성장 정체현상이나 심하면 폐사율이 높은 농장이 많은데, 온도와 환기관리가 소홀한 경우에서 그 원인이 큼니다. 이런 환경 하에서는 우선 사료섭취량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허약자돈이 발생하고, 그 허약자돈은 질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Q 펠릿사료는 영양의 이용효율성 측면이나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취급이나 보관도 용이해서 가루사료에 비해 장점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펠릿사료는 축우사료로서 많이 이용되고 양돈사료로 사용되기는 하나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채병조 강원대 동물자원학부 교수〉

A 기호성, 편식, 소화율, 비중, 먼지발생, 위생성 등에서 펠릿사료는 가루사료에 비해 장점이 많습니다. 사료가공 효과는(펠릿사료 포함) 원료사료의 품질이 낮을수록 효과가 큼니다. 예를 들면 옥수수를 펠릿가공했을 때에 비해 소맥피(밀기울)를 펠릿가공했을 때 효과가 큼니다.

또한 펠릿사료는 축우사료뿐만 아니라 양돈사료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양돈사료의 대부분이 펠릿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나 일본같은 경우는 펠릿사료 이용율이 다소 낮은 것 같습니다. 그 이용율이 낮은 이유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자동급이 라인에서 펠릿이 파열되어 가루 발생이 많거나, 두번째로 농가에서 가루사료에 첨가제를 배합하기 유리하거나, 셋째로 건·습식 급이기에서 가루사료 이용상 편리성 때문이거나(급이기 내에서의 흐름, 변질 등), 마지막으로 펠릿사료의 장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 ● 질 병 ● ●

Q 주사침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모돈에 있어서 주사침 사용은 초산돈 경산돈에 따라 단침, 장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18G×1 / 18G×½) 어떤 것이 좋을 지 알고 싶습니다.

〈김태주 한국애니멀컨설팅클리닉 대표〉

A 주사 시 바늘 길이와 두께도 중요하지만 주사하는 부위와 접종 방법도 약액의 흡수율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즉, 노산돈일 경우 목 피부지방이 두꺼워 어떤 경우 1 ½인치도 흡

수가 잘 안될 때도 있습니다. 유성제제일 경우엔 18G 도 사용하나 보통 19G가 스트레스는 적습니다.

주사 부위는 목 부위중 귓뒤에 너무 가까우면 중이염이나 신경장애도 가능하고 너무 윗쪽으로 치우치면 쇼크가 다발할 수 있고 또한 아래쪽으로 치우치면 임파종이나 혈종도 유발 가능합니다. 접종 전 엄지와 인지로 주사침을 둥글게 감싸면서 주사부위에 먼저 닿도록 바늘을 은폐하면서 누르면 스트레스도 적고 돼지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추후 접종 시에도 편하게 주사할 수 있습니다.

● ● 시설 및 환기 ● ●

Q 습도조절과 온도조절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도는 23도인데 반하여 습도는 75~80%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빈번합니다. '습도가 60% 이상이면 환기가 부족하다'란 말을 들어서 원치커튼은 상향식으로 조절을 해보지만 약 65~70% 정도로 가끔씩 유지됩니다. 자돈사의 경우 해결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유재일 축산시설·환경 컨설팅 위원장〉
자돈단계의 환경기준은

기간\적온범위	저 온	적 온
4주령	29℃	31℃
5주령	28℃	30℃
6주령	27℃	30℃
7주령	26℃	29℃

온도와 습도를 환경기준 범위내로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환기와 기온의 전단계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단계를 완전하게 하지 않고 환기량 조절만으로 습도와 온도의 두 환경요소를 충족시키는 것은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전단

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돈사전체의 열보전 수준이 추천치(벽 스티로폴 두께 7.5~10cm, 지붕 10~15cm)

② 돈방당 사육두수를 기준과 같이 하여야 할 것(1두당 기준면적 : 돈사환기백과 돈사의 바닥방식별 자육단계 및 체중단계별 두당 제공면적)

③ 습도조절 환기시스템을 정확하게(자연환기 : 습도조절 입기구 배기구, 기계식 환기 : 습도조절 환기 입기구, 습도조절 팬)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저온(23℃)이 나타나는 데도 윈치 커튼을 가지고 환기량을 조절하고 있는 것은 두개의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습도조절 환기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나타나는 온도에서는 윈치커튼 부분이 스티로폴 두께 5cm 이상의 단열이 되어 있어야 하는 시기임에도 저온기 환기시스템이 없어서 밀폐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도 관리의 문제는 건물의 단열과 사육밀도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 처방

- 습도조절 환기시스템 정비(새로 설치)
- 열이 새어나가는 곳의 단열(단열되지 않은 콘크리트, 윈치커튼 등)
- 돈방당 사육두수를 기준과 같게 할 것.

■ 저온기 관리

- 환경기준 표의 고온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윈치커튼은 열지 않아야 하며 커튼의 안이나 밖에 반드시 단열을 할 것
- 앞의 조건을 다 갖추어도 온도의 적온범위 유지가 안되면 그 다음 인공난방 방법을 사용할 것
- 앞의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습

도를 적정범위로 유지하면 선도 보온등만으로 적온범위 유지도 됩니다.

극저온시 돈사내 온도가 저온범위로 내려가면 자연환기의 경우는 북쪽 입기구를 내부 습도가 60%에 근접할 때까지 줄여주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식 환기에서는 환기량을 줄이기 위하여 팬 속도를 너무 낮추면 역풍에 의하여 환기가 멈춰 질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양돈농가 상담 ●●

Q 경북 영천에서 돼지 4천두를 사육하던 중 농장 옆에 하천부지가 확장되면서, 농장부지 2천평이 하천부지로 편입되었다. 그로 인해 775평의 돈사도 하천으로 편입되면서 다른 돈사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영업손실 보상기간과 이에 대한 보상금 산정문제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A <대한양돈협회 최성현 지도·기획부장>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공특별)에 의거 토지 수용 등이 일어날 때 해당 사업체의 영업손실 보상기간은 통상 3개월에 이르고, 폐업보상은 2년치를 산정하여 계산해 주고 있으나, 폐업보상을 받기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영업손실 보상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간접피해 및 돈사 건축물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최대한 협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돈**

